

경제교육연구  
제18권 1호(2011. 6), pp.1-21

##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장 경 호\*\*

**【요약문】** 본 연구는 기회비용을 ‘하나의 선택을 위해 포기한 대안 중 최선의 가치’로 정의하고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을 ‘기회비용이 가장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삼는 것은 기회비용과 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오해에서 야기된 것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회비용을 어떤 선택에 따른 명시적인 한계비용과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명시적인 순편익의 합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선택은 순편익을 가장 크게 만드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임을 밝혔다. 본 연구는 ‘비용보다 편익이 크면 합리적 선택이다!’라는 명제가 보편적으로 타당함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

**【주제 분류】** 경제교육

**【주제어】** 기회비용, 순편익, 비용-편익 분석, 합리적 선택

### I. 서론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은 비용에 관련하여 ‘I.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단원에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비용-편익을 고려한 선택을 이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해설서는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이론이 아니라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kjang@inha.ac.kr)

실제 경험에서 배우는 것'과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검토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직접 체험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09). 교육과정 해설서는 '합리적 선택에서 의미하는 비용은 기회비용'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기회비용을 정확히 정의하지는 않고 단지 기회비용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하고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교육부, 2010). 'V.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단원에서는 교역의 이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회비용의 개념이 다시 등장한다. 그러나 기회비용은 비교우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뿐이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금융교육을 반영한 'VI. 경제생활과 금융' 단원에서는 정작 기회비용의 개념은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I 단원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직접 체험'하려면 금융생활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VI 단원은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금융자산을 이해하고 신용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sup>1)</sup>

기회비용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용-편익 분석과 합리적 선택에 너무도 필요한 개념이라 대부분의 교사 또는 학생이 적어도 기회비용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인지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도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은 채 기회비용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금융생활에서 합리적 선택에 관련된 기회비용에 대해서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 또는 사범대학 경제 커리큘럼 수준에서는 제대로 정의할 수 없다. 그렇다고 2009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다루지 않았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회비용은 소비자에게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합리적 선택의 근거가 되고 생산자에게는 이윤의 창출을 통해 이윤 극대화 원리의 근거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기업의 이윤 극대화 원리보다는 소비자 선택에 관련된 기회비용에 대한 분석으로 좁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회비용에 대한 대부분의 학자들의 정의가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타당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을 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중심으로 기회비용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고 기회비용에 대해 보편적으로 타당한 정의를 제시함으로써 경제교육이 일상생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다.

---

1) 기회비용에 대한 고등학교 선택과목 경제 교과서의 설명은 김진영 외(2007), 오영수(2007), 윤동균 외 (2007), 전홍렬 외 (2007), 조도근 외 (2007)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기회비용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기회비용에 근거하여 합리적 선택의 기준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IV장은 결론을 도출한다.

## II. 기회비용에 대한 오해

### 1. 기회비용에 대한 첫 번째 오해 - 기회비용은 조건에 관계없이 ‘포기한 대안 중 최선의 가치’로 측정한다?

기회비용은 경제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과서와 대학교 경제학 교재는 기회비용을 ‘하나의 선택을 위해 포기한 대안 중 최선의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sup>2)</sup> 이는 기회비용이 회계학에서 이용되는 명시적인 비용 외에 선택에 수반되는 암묵적인 비용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회비용을 위와 같이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가정이 성립되는 경우에 한한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과서와 대학교 경제학 교재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기회비용은 조건에 관계없이 포기한 대안 중 최선의 가치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은 다음의 [사례 1]과 같이 기회비용이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을 포함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데 따른 것이다.

#### [사례 1] 해외 유학의 기회비용

고등학생 ‘갑’은 국내의 한 대학의 입시에 합격한 상태에서 최근 해외의 한 대학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갑’은 국내 대학으로 진학할지 아니면 해외 대학으로 진학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해외 유학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계산될까? [사례 1]에서 대다수의 교사와 학생들

2) 이영환(2007), 이준구(2007), 이준구·이창용(2005), Bade and Parkin(2004), Frank *et al.*(2005), Bernanke and Frank(2007), Mankiw(2007), Kruguman *et al.*(2008) 등에서는 모두 기회비용을 포기한 대안 중 최선의 가치로 정의한 후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측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

은 해외 유학의 기회비용은 국내 대학으로 진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이고 국내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은 해외 유학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으로 생각할 것이다. ‘값’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위의 두 가지밖에 없다면 ‘하나의 선택을 위해 포기한 대안 중 최선의 가치’로 측정된 기회비용은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대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해는 기회비용에 관련된 고등학교 교과서나 대학교 경제학 교재에서 **구체적인 가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기회비용을 ‘하나의 선택을 위해 포기한 대안 중 최선의 가치’로 정의하는 데서 야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기회비용을 **조건에 관계없이 포기한 대안** 중 최선의 가치로 정의하면 기회비용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사례 1]에서 해외 유학의 기회비용을 국내 대학으로 진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으로 계산하면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등록금과 생활비의 차이를 해외 유학의 기회비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환율 상승, 해외 대학의 등록금 인상, 해외 생활비 상승 등과 같이 유학에 필요한 명시적인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해외 유학의 기회비용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기회비용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경제학을 일상생활과 거리가 먼 학문으로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교사와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학이 수많은 가정 위에서 현실을 추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현실은 이론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간주하게 만든다면 그들이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교사와 학생들이 기회비용에 대해 잘못 이해하게 된 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는 전형적인 사례가 명시적 비용보다는 암묵적인 비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 전형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례 2] 용돈의 사용에 따른 기회비용 (동일한 가격)**

선영이는 그동안 예쁜 옷과 신발을 사려고 용돈을 모았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 나가 보니 두 가지 모두를 사기에는 돈이 모자랐다. 그래서 선영이는 옷을 살지 신발을 살지 고민에 빠졌다.

(윤동균 외, 2007, 28쪽)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기회비용을 설명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사례 2]는 옷 또

는 신발을 구입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고 각각 **지출해야 할 용돈의 크기가 동일할 때**를 가정하고 있다. 이 때 옷을 살지 신발을 살지 망설이던 선영이가 옷을 사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따른 기회비용은 구입을 포기한 신발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편익과 크기가 같다.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는 교사와 학생들로 하여금 기회비용을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의 선택을 위해 포기한 대안 중 최선의 가치’로만 간주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사례 1]과 [사례 2]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두개밖에 없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선택에 따른 명시적인 비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사례 2]는 그 동안 모은 용돈을 모두 지출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격이 ‘동일한’ 옷과 신발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반면 [사례 1]은 비용이 ‘동일하지 않은’ 해외 유학과 국내 대학 진학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례 3]과 같이 가격이 ‘상이한’ 옷과 신발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상황에서 옷 구입에 따른 기회비용을 측정해보자.<sup>3)</sup>

### **[사례 3] 용돈의 사용에 따른 기회비용 (상이한 가격)**

선영이는 그동안 예쁜 옷과 신발을 사려고 용돈 5만 원을 모았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 나가 보니 옷은 4만 원이고 신발은 3만 원이어서 두 가지 모두를 사기에는 돈이 모자랐다. 그래서 선영이는 옷을 살지 신발을 살지 고민에 빠졌다.

[사례 3]에서 옷을 살지 신발을 살지 망설이던 선영이가 옷을 사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따른 기회비용은 구입을 포기한 신발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편익과 차이가 발생한다. 옷 또는 신발을 구입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는 [사례 2]와

3) [사례 3]과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소비자 선택의 기회비용을 설명하는 사례를 고등학교 교과서나 대학교 경제학 교재에서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용되던 사례가 아니라 직접 [사례 3]과 같은 상황을 가설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기회비용을 ‘하나의 선택을 위해 포기한 대안 중 최선의 가치’로 측정해도 무방한 경우는 주어진 예산을 모두 지출하거나 동일한 명시적인 비용을 지출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임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사례 3]과 같은 상황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이와 같은 사례를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자의 선택의 문제로 상황을 바꾸면 경제학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례가 된다. 즉, 생산자가 은행에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어떤 규모의 사업을 벌일지를 선택하는 문제가 되어 그리 낯설지 않은 사례가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지만 각각 지출해야할 용돈의 크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격이 ‘동일한’ 옷과 신발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상이한’ 두 재화 사이에서의 선택의 문제에서 기회비용을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기회비용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 후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

2. 기회비용에 대한 두 번째 오해 - **조건에 관계없이 기회비용이 가장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순편익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합리적 선택과 동일하다?**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합리적 선택은 경제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과서와 대학교 경제학 교재는 합리적 선택을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것을 선택하는 행위 또는 순편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사례 2]와 같이 지출해야할 **명시적 비용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기회비용이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이 때문에 **‘조건에 관계없이 기회비용이 가장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순편익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합리적 선택과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sup>4)</sup> 이는 앞에서 살펴 본 첫 번째 오해, 즉, **명시적 비용이 동일한 상황**에서 기회비용이 ‘하나의 선택을 위해 포기한 대안 중 최선의 가치’로 간주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어 [사례 2]에서와 같이 명시적 비용이 동일한 경우 옷 구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신발 구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크다는 것은 반대로 옷 구입의 기회비용이 신발 구입의 기회비용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은 결과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으로 ‘기회비용이 가장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과

4) 대부분의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와 대학 교재는 합리적 선택의 기준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순편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을 들고 있다 반면 합리적 선택의 기준을 기회비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설명하는 사례로 박형준·한진수(2009, 94쪽), 윤광원(2010, 136쪽)을 들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비용에 대한 비율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전홍렬 외(2011, 61쪽)와 같은 일부 교사용 지도서는 순편익이 큰 것만을 선택하게 되면 대규모 사업만 선택하게 되는 비용·편익 분석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의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 편익/비용 비율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 대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절대금액이 아닌 비율로 측정하는 오류’를 지적한 Frank and Bernanke (2007, 9-10쪽)를 참조할 수 있다.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동일해지기 위해서는 주어진 예산을 모두 지출하거나 명시적인 비용이 동일하다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의 사례와 같이 명시적인 비용이 상이한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5)</sup>

**[사례 4] 유료 입장권과 무료 입장권 사이의 선택**

‘을’은 다가오는 주말에 영화를 보려고 5,000원짜리 입장권을 예매했다. 이튿날 친구로부터 연극을 볼 수 있는 무료입장권을 얻었으니 함께 공연을 보자는 연락이 왔다. ‘을’이 영화와 연극을 관람하여 얻을 수 있는 효용은 각각 7,000원과 3,000원이다. 단, 영화 입장권은 예매를 취소하면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시간, 교통비 등 다른 비용은 일체 없다고 한다.<sup>6)</sup>

[사례 4]는 관람권의 가격이 ‘상이한’ 영화와 연극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례 3]의 상황과 유사하지만 기회비용에 대한 첫 번째 오해와 두 번째 오해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각 대안의 선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사례 4]에서와 같이 명시적 비용이 동일하지 않은데도 기회비용을 ‘하나의 선택을 위해 포기한 대안 중 최선의 가치’로 측정한다면 영화를 관람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은 연극을 관람했다라면 얻을 수 있는 편익인 3,000원인 반면 연극을 관람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은 영화를 관람했다라면 얻을 수 있는 편익인 7,000원이 된다. 만일,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을 ‘기회비용이 가장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삼는다면 결과적으로 연극보다는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셈이다. 이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순편익의 크기로 판단한 합리적 선택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결국 [사례 4]에서와 같이 명시적 비용이 상이한 경우 기회비용에 대한 두 가지 오해는 서로 모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5) 이러한 오류는 생산 활동 측면에서의 ‘비교우위론’을 소비 활동에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즉, 생산 측면에서 기회비용이 낮은 것에 특화하는 ‘비교우위론’의 영향을 받은 결과 소비 측면에서 기회비용이 낮은 것을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간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설명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사례도 [사례 2]와 같은 암묵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산가능곡선이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례에서는 생산곡선 자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주어진 생산 요소를 모두 이용하고 있어 그에 따른 명시적 비용이 동일한 경우를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6) 이 사례는 KDI·기획재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 고교생 경제한마당’(제4회) 문항을 참조하였다.

### Ⅲ.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 1. 기회비용

기업이 생산활동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가계가 소비활동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중등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기업의 목적이 이윤의 극대화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일부 교사와 학생들은 가계의 목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교사와 학생들은 가계의 목적을 효용 극대화라고 오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에 있어서 이윤이라 하면 판매수입에서 생산비용(생산의 기회비용)을 뺀 것이다. 기업에게 판매수입은 가계의 효용에 해당하고 기업의 생산비용은 가계에게 소비의 기회비용에 해당한다. 가계의 목적이 효용 극대화라고 한다면 기업의 목적이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판매수입의 극대화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기업의 목적이 이윤 극대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목적은 효용과 기회비용의 차이인 ‘순효용’의 극대화가 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순효용의 극대화가 친숙하지 못한 이유는 소비에 있어서 기회비용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데 있다.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면 효용의 극대화는 순효용의 극대화와 동일하다. 기업에게 판매수입이 일정하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윤 극대화의 원리와 동일하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다면 소비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 이는 [사례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산을 모두 소진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격이 ‘동일한’ 두 대안 사이에서 소비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효용 극대화’가 ‘순효용의 극대화’와 같아지려면 기회비용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생들에게는 소비의 목적이 ‘효용 극대화’로 잘못 이해되는 것은 아마도 [사례 2]에서 주어진 예산을 모두 소진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사례 2]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에도 기회비용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사례 4]와 같이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 또는 일부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모두 소진할 수 없기 때문에 효용 극대화와 순효용 극대화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회비용의 개념에 대한 옳은 정립을 위해 다음의 가정에서 출발한다.



**[가정 1] 항상 선택 가능한 대안**

선택 가능한 대안에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선택이 항상 포함된다.

[가정 1]은 견해에 따라서는 너무도 당연한 전제인지 모른다. 그러나 선택 가능한 대안에는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선택을 한계적인 선택으로 규정할 수 있어 기회비용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정 1]에 근거하여 명시적인 한계비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 1] 명시적인 한계비용**

어떤 선택에 따른 명시적인 한계비용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선택에 비해 추가적으로 드는 회계적인 비용이다.

[정의 1]은 어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을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가 아니라 ‘한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정의 1]은 명시적인 비용이 회계학적 비용과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을 구하는 경우 대학 진학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되는 생활비는 대학 진학의 회계학적 비용에 포함되지만 기회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정 1]과 [정의 1]에 근거하여 명시적인 순편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 2] 명시적인 순편익**

어떤 선택에 따른 명시적인 순편익은 그 선택에 따른 편익에서 명시적인 한계비용을 뺀 것이다.

[정의 2]는 명시적인 순편익을 편익과 비용의 차이로 계산하지만 [정의 1]에서 정의된 명시적인 한계비용을 이용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이용하면 다음의 가정에서와 같이 선택 가능한 대안의 필요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가정 2] 선택 가능한 대안의 필요조건**

선택 가능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순편익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가정 2]는 [가정 1]을 일반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을 때 명시적인 순편익이 0으로 가정한다.<sup>7)</sup> 이러한 의미에서 [가정 1]은 [가정 2]의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 1]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시적인 한계비용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정 2]의 필요조건보다는 더 강한 의미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에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을 때를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가정 2]는 명시적인 순편익이 0보다 작은 것을 선택 가능한 대안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선택의 문제를 한층 간결하게 만들 수 있다.

### **[정의 3]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에 따른 명시적인 한계비용과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명시적인 순편익의 합이다.

[정의 3]은 [가정 1]과 [가정 2]에 의해 기회비용을 어떤 선택에 따른 명시적인 한계비용과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명시적인 순편익의 합으로 측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의 선택을 위해 포기한 대안 중 최선의 가치’로 측정된 기회비용의 개념을 일반화한 것이다. 즉, 주어진 예산을 모든 지출하는 경우를 가정한 기회비용의 개념을 어떤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확장하기 위해 기회비용을 ‘어떤 선택에 따른 명시적인 한계비용과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명시적인 순편익의 합’으로 측정한다는 것이다.

## **2. 합리적 선택**

일반적으로 순편익은 어떤 선택에 따른 편익과 기회비용의 차이로 정의된다.

### **[정의 4] 순편익**

순편익은 어떤 선택에 따른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것이다.

---

7) ‘한계적’인 의미에서 선택의 문제를 분석할 때 본 연구에서 상정한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명시적인 순편익이 0보다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 진학과 관련된 선택의 문제에서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일상적으로 생활비를 지출한다. 이때 소비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명시적인 순편익은 0보다 크다. 그러나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의 명시적인 순편익의 크기는 ‘한계적’인 선택의 문제와 관련된 분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명시적인 순편익이 0으로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선택은 순편익의 크기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정의 5]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은 순편익의 크기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모든 대안의 기회비용과 편익이 동일할 경우 또는 특정 대안의 기회비용과 편익이 동일할 경우 합리적 선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대안의 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가정이지만 다음의 가정을 통해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상황을 단순화하고자 한다.

### **[가정 3] 합리적 선택의 유일성**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합리적 선택은 하나뿐이다.

[가정 3]을 이용하면 다음의 정리에서와 같이 순편익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 **[정리 1] 순편익의 특징**

[가정 1]~[가정 3]에 의해, 선택 가능한 대안 중 순편익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1개뿐이다.

증명: 선택 가능한  $n(\geq 2)$ 개의 대안 중 대안  $k$ 의 순편익이 가장 크다고 하자. 이 때 임의의 대안  $i$ 의 기회비용은 대안  $i$ 의 명시적 한계비용과 나머지 대안  $j(\neq i)$ 중 가장 큰 명시적인 순편익의 합이다. 즉 ‘대안  $i$ 의 기회비용 = 대안  $i$ 의 명시적 한계비용 +  $\max(\text{대안 } j \text{의 편익} - \text{대안 } j \text{의 명시적 한계비용})$ ’이다. 이에 따라 대안  $i$ 의 순편익을 구하면, ‘대안  $i$ 의 순편익 = (대안  $i$ 의 편익 - 대안  $i$ 의 명시적 한계비용) -  $\max(\text{대안 } j \text{의 편익} - \text{대안 } j \text{의 명시적 한계비용})$ ’이다. 따라서 임의의 대안  $i$ 의 순편익은 [가정 3]에 따라 ‘ $i = k$ ’일 때만 0보다 크거나 같고 나머지 대안의 순편익은 0보다 작다.

[정리 1]은 [정의 5]에 의해 정의된 기회비용의 개념을 이용하면 선택 가능한 대안 중 순편익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대안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여 다음 정리에서와 같이 합리적 선택의 기준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 [정리 2] 합리적 선택

[가정 1]~[가정 3], [정의 5] 및 [정리 1]에 의해, 합리적 선택은 비용보다 편익이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증명: [정리 1]에서 순편익이 0보다 큰 대안이 1개밖에 없고 [정의 5]에 의해 합리적 선택이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이라면 합리적 선택의 순편익은 0보다 크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은 비용보다 편익이 큰 대안을 선택이다.

[정리 2]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용-편익 분석의 원리이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밝히고자 했던 것이 경제학의 출발선인 ‘비용-편익 분석’의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해 본 연구의 결론은 너무도 단순하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기회비용과 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끝에 얻은 결론이 경제학의 출발선인 비용-편익 분석의 기본적인 원리라면 본 연구는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의 개념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이해되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사례 연구

기회비용의 측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사례 5]와 [사례 6]과 같은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이다. 이를 통해 기회비용을 본 연구의 [정의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떤 선택에 따른 명시적인 한계비용과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명시적인 순편익의 합’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사례 5]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 (생활비가 없는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병’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데는 연간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로 800만 원이 든다. ‘병’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했다면 연간 2,000만 원을 벌 수 있었다. 단, 병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과 취업할 수 있었던 회사는 모두 집 근처에 있어서 생활비는 동일하게 든다고 한다.<sup>8)</sup>

8) 이는 기회비용의 측정과 관련된 전형적인 사례이다. 예를 들어 Lieberman and Hall(2005, 44쪽)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어도 소비했어야 하는 생활비를 기회비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례 5]는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교재는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으로 교육비 800만 원 외에 취업을 포기한 데 따른 2,000만 원의 소득을 들고 있다. 즉, 기회비용을 명시적인 비용과 암묵적인 비용의 합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기회비용을 ‘하나의 선택을 위해 포기한 대안 중 최선의 가치’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에 필요한 명시적인 비용인 교육비를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을 측정하면 명시적인 한계비용인 교육비 800만 원과 포기한 명시적인 순편익인 소득 2,000만 원의 합인 2,800만 원으로 대부분의 교재에서 계산한 기회비용과 동일하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생활비는 대학에 진학했든지 취업했든지 간에 동일하게 소요될 것이므로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 1]과 [정의 1]에 의해 명확해진다. 즉, 대학 진학 또는 취업과 같은 선택의 문제를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한계적’인 선택으로 접근한다면 명시적인 한계비용에는 생활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9)</sup>

[사례 5]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이 대부분의 교재에서 설명하는 바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다음 [사례 6]과 같이 대학과 회사가 위치한 곳이 집에서 멀어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기회비용의 측정 결과는 동일하지만 그 도출 과정은 서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사례 6]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 (월세가 드는 경우)**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병’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데는 연간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로 800만 원이 든다. ‘병’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했다면 연간 2,000만 원을 벌 수 있었다. 단, 병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과 취업할 수 있었던 회사는 모두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월세를 내야 하지만 그 비용은 500만 원으로 동일하다고 한다.

대부분의 교재는 [사례 6]의 상황에서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을 [사례 5]와 마찬가지로 교육비와 포기한 소득을 합한 2,800만 원으로 측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기회비용을 ‘하나의 선택을 위해 포기한 대안 중 최선의 가치’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에

9) 여기에서 사례로 들지는 않았지만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와 취직을 하는 경우에 지출되는 월세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회비용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필요한 명시적인 비용인 교육비를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생활비뿐만 아니라 월세도 대학에 진학했는지 취업했는지 간에 동일하게 소요될 것이므로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0)</sup>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을 측정해도 기회비용은 2,80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명시적인 한계비용은 교육비 800만 원과 월세 500만 원을 합한 1,300만 원이고 포기한 명시적인 순편익은 소득 2,000만 원에서 월세 500만 원을 뺀 1,500만 원이다.<sup>11)</sup> 따라서 대학진학의 기회비용을 명시적인 한계비용과 포기한 명시적인 순편익의 합으로 구해도 2,800만 원이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회비용을 [정의 3]에 명시한 바와 같이 어떤 선택에 따른 명시적인 한계비용과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명시적인 순편익의 합으로 측정한다. 이를 이용하면 앞에서 제기했던 ‘기회비용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다. 이를 [사례 1]~[사례 3]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에서 해외 유학의 기회비용은 해외 유학에 따른 교육비, 생활비 등 명시적인 한계비용에 국내 대학 진학으로 얻을 수 있는 명시적인 순편익의 합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에 환율 상승, 해외 대학의 등록금 인상, 해외 생활비 상승 등과 같이 유학에 필요한 명시적인 비용이 상승하면 해외 유학의 기회비용이 그만큼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경제학이 일상생활에 한층 더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사례 2]에서 옷과 신발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해야 할 용돈의 크기가 동일할 때 옷을 구입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은 옷 구입에 필요한 명시적인 한계비용에서 신발 구입으로 얻을 수 있는 명시적인 순편익의 합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에 옷을 구입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선택하지 않은 신발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편익으로 계산해도 기회비용의 크기가 같아진 것은 주어진 예산을 모두 지출한다는 가정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즉, ‘동일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옷 구입에 필요한 명시적인 한계비용과 신발 구입에 필요한 명시적인 한계비용이 서로 상쇄되면서 ‘하나의 선택을 위해 포기한 대안 중 최선의 가치’로 구한 기회비용이 ‘어떤 선택에 따른 명시적인 한계비용과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명시적인 순편익의 합’으로 구한 기회비용

10) 예를 들어 한진수(2002, 29쪽)와 Krugman(2007, 13쪽)에서와 같이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에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취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이 포함되지만 월세는 제외된다.

11) [사례 6]에서 월세는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드는 생활비에 비해 추가적으로 드는 한계비용으로 측정하고 있다.

과 동일해진다는 것이다.<sup>12)</sup>

그러나 ‘상이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옷 구입에 필요한 명시적인 한계비용과 신발 구입에 필요한 명시적인 한계비용이 서로 상쇄되지 않아 ‘하나의 선택을 위해 포기한 대안 중 최선의 가치’로 구한 기회비용이 ‘어떤 선택에 따른 명시적인 한계비용과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명시적인 순편익의 합’으로 구한 기회비용과 달라진다.<sup>13)</sup> 이러한 차이는 [사례 3]에서와 같이 옷과 신발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상이할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례 3]에서 옷을 구입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은 명시적인 한계비용인 4만 원에 신발 구입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순편익을 합한 것으로 신발 구입에 따른 편익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기회비용을 어떤 선택에 따른 명시적인 한계비용과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명시적인 순편익의 합으로 측정한다. 여기에서 [가정 1]과 [가정 2]의 역할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사례 7] 선택 가능한 대안의 조건**

선영이는 그동안 예쁜 옷과 신발을 사려고 용돈 5만 원을 모았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 나가 보니 옷과 신발은 각각 5만 원이어서 두 가지 모두를 사기에 돈이 모자랐다. 단, 선영이가 옷과 신발 구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은 각각 7만 원과 3만 원이라고 한다.

[사례 7]에서 옷 구입에 따른 명시적인 한계비용과 명시적인 순편익은 각각 5만 원과 2만 원이고 신발 구입에 따른 명시적인 한계비용과 명시적인 순편익은 각각 5만 원과 -2만 원이다. 만일 [가정 1]과 [가정 2]를 염두에 두지 않고 기계적으로 기회비용을 구하면 옷 구입에 따른 기회비용은 5만 원에서 2만 원을 뺀 3만 원이고 신발 구입에 따른 기회비용은 5만 원에 2만 원을 합한 7만 원이 된다. 그러나 기회비용을 이렇게 측정해서는 안 된다. [가정 1]과 [가정 2]가 명시하듯이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항상 선택 가능한 대안에 포함되고 명시적인 순편익이 0보다 작은 것은

12)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옷과 신발 구입에 따른 명시적 비용이 모두  $P$ 로 동일하고 편익은 각각  $B_1$ 과  $B_2$ 라고 하자. 이 때, 옷 구입에 따른 기회비용은  $P + (B_2 - P) = B_2$ 가 되어 동일한 명시적 비용( $P$ )이 서로 상쇄됨을 알 수 있다.

13)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옷과 신발 구입에 따른 명시적 비용이 각각  $P_1$ 과  $P_2$ 이고 편익은 각각  $B_1$ 과  $B_2$ 라고 하자. 이 때, 옷 구입에 따른 기회비용은  $P_1 + (B_2 - P_2) \neq B_2$ 가 되어 앞의 사례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선택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사례 7]에서 [가정 2]에 의하면 신발 구입은 선택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고 [가정 1]에 의해 옷 구입은 아무 것도 구입도 하지 않는 대안과 비교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옷 구입에 따른 기회비용은 5만 원에서 2만 원을 뺀 3만 원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5만 원으로 측정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기회비용은 ‘하나의 선택을 위해 포기한 대안 중 최선의 가치’라는 개념을 일반화하여 ‘어떤 선택에 따른 명시적인 한계비용과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명시적인 순편익의 합’으로 측정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합리적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기회비용을 [정의 5]에 명시한 바와 같이 합리적 선택은 순편익의 크기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를 이용하면 앞에서 제기했던 ‘합리적 선택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다.

[사례 4]와 같이 효용의 크기가 제시된 경우에 순편익을 명시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을’에게 영화를 관람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은 명시적인 한계비용인 5,000원에 연극을 관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명시적인 순편익인 3,000원을 더한 것이다. 반면 무료로 연극을 관람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은 명시적인 한계비용인 0원에 영화를 관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명시적인 순편익인 2,000원을 더한 것이다. 따라서 ‘을’이 영화를 관람할 때 얻는 순편익은 -1,000원인 반면 연극을 관람할 때 얻는 순편익은 1,000원이 된다. 따라서 ‘을’에게 합리적인 선택은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을 관람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회비용을 ‘하나의 선택을 위해 포기한 대안 중 최선의 가치’로 정의하고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을 ‘기회비용이 가장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삼는 경우에 연극보다는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되는 경우와 대조적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사례 4]의 경우에 [정의 3]에서 제시한 기회비용의 정의를 이용하면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을 ‘기회비용이 가장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삼더라도 순편익이 가장 최대가 되는 선택과 동일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 이는 [사례 4]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면 그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사례 8] 합리적 선택의 기준**

‘을’은 이번 주말 영화를 보려고 5,000원 관람권을 예매했다. 이튿날 친구로부터 연극을 볼 수 있는 무료입장권을 얻었으니 함께 공연을 보자는 연락이



왔다. ‘을’이 영화와 연극을 관람하여 얻을 수 있는 효용은 각각 8,000원과 2,000원이다. 단, 영화 관람권은 예매를 취소하면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시간, 교통비 등 다른 비용은 일체 없다고 한다.

[사례 8]은 [사례 4]에서 효용의 크기만을 바꾼 것이다. 이 경우 ‘을’에게 영화를 관람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은 명시적인 한계비용인 5,000원에 연극을 관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명시적인 순편익인 2,000원을 더한 7,000원이다.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연극을 관람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은 3,000원이다. 따라서 ‘을’이 영화를 관람할 때 얻는 순편익은 1,000원인 반면 연극을 관람할 때 얻는 순편익은 -1,000원이 된다. 즉, 합리적인 선택은 순편익을 가장 크게 만드는 대안을 선택하여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다. 이는 ‘기회비용이 가장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삼는 경우에 영화보다는 연극을 관람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되는 경우와 대조적이다. [사례 4]와 [사례 8]은 기회비용의 정의와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을 옳게 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 IV. 결론

경제학에 처음으로 입문한 한 학생이 “합리적인 선택은 편익이 비용보다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담당 교사나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이 학생을 기특하게 여기면서도 속으로는 ‘대안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만!’이라고 단서를 붙일지도 모른다.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수히 많다면 합리적인 선택은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야!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가장 순편익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거야!’라고 옳게 생각하고는 있어도 ‘이는 비용보다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특징이다. ‘비용보다 편익이 크면 합리적 선택이다!’ 얼마나 간단하고 명쾌한가?

## 참 고 문 헌

- Bade, R. and M. Parkin (2004). *Foundation of Economics*, 2nd Ed., Addison Wesley.
- Bernanke, B. and R. Frank (2007). 3rd Ed., *Economics*, McGraw-Hill Korea (곽노선 · 왕규호 옮김, 『버냉키 · 프랭크 경제학』. 제3판. 한국 McGraw-Hill, 2007).
- Frank, R. H., B. S. Bernanke, L. Osberg, M. L. Cross, and B. K. MacLean(2005).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2nd Ed., McGraw-Hill.
- Krugman, P., R. Wells and M. L. Olney (2007). *Essentials of Economics*, Worth Publishers (김재영 · 박대근 · 전병헌 옮김, 『크루그먼의 경제학 입문』. 시그마프레스, 2008).
- Lieberman, M. and R. E. Hall (2005). 2nd Ed., *Introduction to Economics*, Thomson (김인철 · 이현재 · 이종민 옮김, 『경제학원론』. 제2판. 생능출판사, 2006).
- Mankiw, Gregory N. (2007). *Principles of Economics*. 4th Ed., Thomson Southwestern (김경환 · 김종석 옮김, 『맨큐의 경제학』. 제4판. 교보문고, 2007).
- Wikipedia 웹사이트, [http://en.wikipedia.org/wiki/Opportunity\\_cost](http://en.wikipedia.org/wiki/Opportunity_cost)
- 교육부(2009).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09-10호 【별책 7】 .
- 교육부(2010). 『2010년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서 - 경제』.
- 김진영 · 김경모 · 김용자 · 주은옥 · 정석민(2007). 『고등학교 경제』. (주)대한교과서.
- 박형준 · 한진수(2009). 『숨어있는 경제학자』. 동아일보사.
- 오영수(2007). 『고등학교 경제』. (주)교학사.
- 윤광원(2010). 『간간 경제 맛깔 논술』, 박문각
- 윤동균 · 박종희 · 정창우 · 김옥화(2007). 『고등학교 경제』. (주)법문사.
- 이영환(2007). 『미시경제학』, 제2판. 율곡출판사.
- 이준구(2007). 『미시경제학』, 제4판. 법문사.
- 이준구, 이창용(2005). 『경제학 원론』, 제3판. 법문사.
- 전홍렬 · 김준영 · 김기영 · 김영우 · 이환우 · 신형민(2007). 『고등학교 경제』. (주)천재교육.
- 전홍렬 · 김준영 · 김기영 · 김영우 · 이환우 · 신형민(2011). 『고등학교 경제 교사용 지도서』. (주)천재교육.
- 조도근 · 전택수 · 박형준 · 김중호 · 문승래 · 박건호 · 박윤경(2007). 『고등학교 경제』. (주)두산.
- 한진수(2002). 『쉽게 알자! 경제지식』. 더난출판.

<부록 1> 기회비용에 대한 고등학교 교과서와 대학 교재의 설명

교재	쪽	설명
김진영 외(2007)	25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포기한 것 중 가장 높은 것의 가치
오영수(2007)	26	어떤 선택으로 인해 자신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의 가치(또는 편익)
	27	어떤 선택으로 인해 자신이 포기하는 것은 현재의 선택에 명시적으로 투입되는 비용(명시적 비용)과 그 시간 동안 자신이 포기하는 다른 기회의 가치(암묵적 비용)를 다 포함하는 것
윤동균 외(2007)	29	어떤 경제적 선택의 결과로 포기되는 행위의 가치들 중 가장 큰 가치
전홍렬 외(2007)	30	포기한 여러 활동 가운데 차선의 가치
조도근 외(2007)	27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만 하는 모든 대안들 중 가장 가치 있는 대안
이영환(2007)	24	포기한 차선의 가치
	25	기회비용은 미래지향적 비용, 회계비용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으며 서로 일치하기도 함
	226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계
이준구(2007)	5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말미암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선택 가능성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221	명시적 비용 외에 암묵적 비용까지도 포함
이준구·이창용(2005)	9	어떤 행위를 선택함으로써 인해 포기해야 하는 여러 행위 중 가장 큰 가치를 갖는 행위의 가치로 측정
Bade & Parkin(2004)	13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 중 최선의 가치
Bernanke & Frank(2007)	7	그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여야 하는 최선의 행동의 화폐 가치
Krugman <i>et al.</i> (2007)	11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의 실제 비용
Liebermand & Hall(2005)	43	어떤 선택을 대신한 여러 대안들 중 가장 좋은 것
Mankiw(2007)	7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
	315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

<부록 2> 합리적 선택에 대한 고등학교 교과서와 대학 교재의 설명

교재	쪽	설명
김진영 외(2007)	26	같은 비용이라면 편익이 큰 경우를, 같은 편익이라면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를 선택
	101	합리적 소비 지출이란 한정된 소득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소비 지출을 하는 것
오영수(2007)	27	한계적 선택에서의 편익과 비용, 즉 한계 편익과 한계비용을 고려하여 순편익이 가장 큰 쪽을 선택함. 이 때, 비용은 진정한 경제적 비용, 즉 기회 비용을 말함
	103	합리적 소비란 순편익(=예상되는 편익 - 기회 비용)이 가장 높은 소비 기회를 선택하는 것
윤동균 외(2007)	35	합리적 선택은 기회 비용의 개념을 적용하여 비용-편익을 분석하여 편익이 가장 큰 쪽을 선택하는 것
	112	소비자가 일정한 소득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 소비 활동을 할 때, 이를 합리적 소비라 함
전홍렬 외(2007)	31	비용보다 더 큰 편익이 있는 선택
	142	합리적 소비: 모든 재화로부터 얻는 한계 효용이 각각의 재화마다 똑같아지도록 소비하는 것-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142	소비로 인하여 얻는 만족감은 클수록, 기회 비용은 작을수록 합리적임
	142	재화를 소비할 경우에는 각 재화의 한계 효용이 같도록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임
조도근 외(2007)	27	우리가 선택한 것이 포기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선택은 현명한 것임
	29	합리적 선택 -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고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29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만족감을 최대로 높여 주는 대안을 선택
	113	합리적 소비 - 한정된 소득을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소비
전홍렬 외(2011)	61	편익/비용 비율이 큰 것을 선택
Bade & Parkin (2004)	16	한계 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큰 것을 선택
Bernanke & Frank (2007)	8-9	비용과 편익의 크기에 근거하여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 즉 경제적 잉여를 창출하는 행동만을 선택
Krugman <i>et al.</i> (2007)	10	자신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모두 사용
Mankiw(2007)	8	한계 이득이 한계비용보다 더 큰 선택

<Abstract>

## Opportunity Cost and Rational Choice\*

Jang, Kyungho\*\*

This paper considers that misconception about opportunity cost and rational choice leads to wrong definition that opportunity cost is the cost of any activity measured in terms of the best alternative forgone and that rational choice is the choice of alternative with the lowest opportunity cost. Instead, this paper shows that opportunity cost is the sum of explicit marginal cost and the largest net benefit forgone.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showing that it is generally true that a choice is rational as long as benefit exceeds cost.

**Key Words:** Economic Education, Opportunity Cost, Cost-benefit Analysis, Rational Choice

원고접수: 2011년 4월 31일      심사일: 2011년 5월 7일 ~ 2011년 6월 7일  
게재확정: 2011년 6월 16일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HA UNIVERSITY Research Grant.

\*\* Inha University.